

여대생의 흡연 행위에 관한 연구*

김 경 선 (원광보건대학 간호학과)

목 차

I. 서론	V. 논의
II. 문헌고찰	VI.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V. 연구결과	영문초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간의 건강에 대한 요구는 생명유지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예방과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은 일상적인 생활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흡연, 음주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습관으로 보아진다. 이 중 흡연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흡연자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속성이 커서 예방이 가장 가능한 요인으로 보고하였으며(김문실, 김애경, 1997a; McDermont et al., 1992; Penner, 1989),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액이 연간 6조2천3백여억원에 달하는 등 내외적인 피해가 크고, 간접적인 흡연 역시 악영향을 미치며 피해액도 1천7백21억원이라고 하였다(중앙일보, 2000년 9월 27일).

우리 나라 흡연인구를 보면 남성의 흡연율은 1995년에 67.7%, 1989년, 70.8%로 감소하는 반면 여성

의 흡연율은 1998년에 6.7%, 1995년에 5.1%, 1989년, 4.2%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남정자, 1997) 이처럼 여성인구의 흡연을 증가는 남성의 흡연율과는 대조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은 과거 10년 동안 10배나 증가해 왔다고 보고하였다(금연운동협의회, 1995).

흡연은 여러 가지 질병과 사망의 원인으로 전체 암 사망 원인의 30%,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원인의 20%, 만성 폐색성 질환 원인의 80%가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흡연 여성이 비흡연여성에 비해 사산율이 30%나 높으며, 주산기 사망률도 26%로 높고(최연순 등, 1994), 임신중의 흡연 역시 저체중아, 선천적 기형, 호흡기 질환 등 태아와 신생아의 성장과 발달에 관련된 문제를 야기하고, 임신 이전의 흡연에 대한 경험 또한 축적으로 인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nner, 1989).

그러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연 후 건강상태의 변화에 대한 차이를 별로 못 느낌으로 인해 흡연이 건강에 주는 피해를 가볍게 보는 안이한 사고

* 본 연구는 2000년 원광보건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를 하는 것으로 보았다(김경선, 이지원, 1999). 또한 여대생 흡연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응답하였고, 금연을 할 의도가 없는 대상자가 30.77%로 보고하였고(김혜원, 1999), 일부 연구에서도 장년층이 건강염려로 금연을 실시함에 반해 젊은 성인층은 건강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적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종성 등, 1989; 전상임 등, 1992).

여성건강의 측면에서 흡연을 조망해 볼 때 젊은 여성은 미래의 지도자로서 좋은 건강습관을 형성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역할모델이 되어야 하며, 장차 모체로서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을 담당할 중요한 구성원이나, 이들의 여성흡연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로 건강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도 아직은 표면화된 사회적인 현상으로 취급되지 않아 더욱 연약한 환경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McAlister(1975)의 연구에 의하면 금연성공자의 90%가 스스로 끊었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세우기 전에 대상자에 대한 주관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흡연은 음주, 운동 등과 같이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스스로 조절하는 속성이 크며, 흡연행위는 주관적인 것으로 가치, 신념, 동기, 태도, 관심 등에 따라 독특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주관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관적 연구 방법 즉, Q 방법으로 접근하여 나아가고 있는 흡연 여대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주관적인 구조를 추가한 금연교육과 건강증진 교육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여대생의 흡연행위에 관한 태도를 유형화한다.
2. 여대생의 흡연행위에 대한 주관적 구조로 파악된 유형별 특성을 서술한다.

II. 문헌 고찰

1. 여성흡연

건강을 예방하고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양식을 습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흡연은 일상생활 속에서 흡연자 자신이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음주, 운동과 같이 개인의 책임 하에 행하여지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실시되어 선진국의 경우는 흡연율이 50%이상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흡연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전상임 등, 1992). 특히 한국에서는 남자의 흡연율은 감소하는 반면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흡연은 양과 시작 연령이 질병의 발생율과 관계가 있으며, 특히 젊은 나이인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25세에 시작한 경우 보다 폐암 발생율이 3배가 되고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을 역시 흡연량과 관계가 있어 흡연을 중단할 경우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든다고 하였다(Anderson, 1985).

흡연은 사회적, 환경적, 심리적 및 생물학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복합적인 과정으로 (Haire, et al., 1997), 생물학적 변수로는 약리생리작용이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친구, 부모, 형제, 대중매체 등이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요인으로는 흡연의도, 스트레스 증가, 자아존중감 저하, 부적절한 대응기술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Winkelstein, 1992).

흡연을 하게 되는 동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 흡연이 사회적 불안정감과 관계가 있는데 반해 여성 흡연은 자기 확신, 사회 경험, 반항심과 관련 있고 (Clayton, 1991), 남학생에 비해 금연계획을 덜 가지고 있다(김종성 등, 1989). 이창희 등(1992)에 연구에 의하면 흡연 시작 연령은 20대로 남성은 호기심, 여성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학생의 흡연은 가족의 영향을 덜 받는다 (Gray,1990) 반면 부모의 흡연 정도와 친구의 흡연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낮고 흡연 관련 지식이 낮을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김경선, 이지원, 1999).

여성흡연 실태를 이수경(1987)과 송미숙(1987)의 연구에서 보면, 연구 대상자의 28.9%, 28.6%가 각각 흡연을 하였고 비흡연자에 비해 건강에 대한 피해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으며 결식을 하는 등 불규칙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외모 가꾸기 등 잘못된 성적 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흡연을 체중감소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김경선, 이지원, 1999).

한편 김일순(1987)은 흡연이 식욕감퇴를 일으키고 일산화탄소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조직의 산소결합 능력과 산소압이 감소하기 때문에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체중이 평균 2-3kg 적다고 보고하였고, Naslund 등(1996)의 흡연과 비흡연남성의 연구에서도 흡연행동의 건강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식사항상과 신체운동량 증가를 격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문실, 김애경(1997b)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흡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반항하는 유형이 있으며 여성의 흡연은 건강과의 관련성보다는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 보는 시각이 강하여 흡연을 중단하기 보다는 강한 흡연의지를 갖고 있고 오히려 자신의 생활방식으로서 흡연행위를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의 잘못된 기준에 의해 상당수의 여성은 외모나 성적 특성을 위해 흡연을 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였다(김혜원, 1998; 김경선, 이지원, 1999). 즉 한 인간으로써 여성의 권리로 흡연을 성차별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잘못된 성적 가치관을 여성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된다.

아직도 현대 사회구조상 어려움을 표현 못하는 여성은 건강행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이 있고(Maunz & Woods, 1988), 여성 자신 속에 내재된 성 역할 고정관념은 건강증진 생활방식과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서연옥, 1995). 따라서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고 피로움이나 인생의 고달픈 처지를 달래기 위한 건전한 대처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보았다(김경선, 이지원, 1999).

여성흡연은 유방암 발생율의 증가를 가져오고(Hiatt & Forman, 1986), 여성의 수정능력을 저하시켜 비흡연자에 비해 난관성 불임증이 될 가능성이 2.7%나 높으며,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쳐 T-세포의 이상을 초

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이계은, 1992).

산모의 경우 일산화탄소가 모체와 태아의 헤모글로빈을 비활성화시키고 니코틴의 혈관수축작용으로 인해 태반 혈류 감소, 식욕감소를 일으킨다. 흡연하는 여성이 저체중아를 낳을 확률은 여성의 2배나 되며(fielding, 1985), 조산, 사산과 관련이 있어 신생아 사망을 증가시키고, 임신전의 흡연 경험 역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enner, 1989).

흡연은 흡연자 자신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데 부모의 흡연으로 인해 자녀의 천식음과 진성천식이나 신장 등에 영향을 주어 질병 발생율이 높아지고(이수경, 1987), 흡연하는 남편과 사는 부인의 폐암 발생율과 관계가 있으며(Hirarama, 1981), 부모의 흡연은 청소년과 자녀의 수동적인 흡연으로 인해 이후에 흡연할 가능성이 높다(Brink, 1988).

정영숙(1999)의 연구에서 흡연량, 담배 종류, 담배연기 흡입습관에 따라 니코틴 의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여성의 흡연이 주로 화장실, 카페 등 밀폐된 공간에서 음성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더욱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리더로서 미래사회를 이끌어가고 미래 건강을 책임질 여대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흡연동기가 남성과 다르며 흡연에 대한 중심적인 개념 역시 긍정과 부정을 모두 지니고 있고 사회적인 성차별과 개념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주관적인 구조에 따른 유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Q방법을 적용하였다.

2. 연구절차

1) Q-표본과 분포도

본 연구를 위한 Q-표본은 흡연행위에 관한 태도를 나타내는 진술문으로, 문헌과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흡연여부와 상관없이 여대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여 52개의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위의 단계에서 얻어진 진술문의 중복을 피하고 여대생의 흡연에 대한 개념과 가치, 신념, 동기,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태도에 관한 진술문 40개를 Q-sample로 선택하였다.

선택된 진술문은 아래와 같다.

1.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나는 냄새가 싫다.
2.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3. 담배를 피우면 체중이 감소된다.
4. 할 일이 없을 때 담배에 손이 간다.
5.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6. 여성 흡연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7. 흡연으로 건강에 이상이 오지 않는다.
8. 흡연이 자기 몸을 망가트릴 것이다.
9. 미화된 흡연장면을 보면 흡연을 하고 싶다.
10. 흡연을 함으로서 남녀가 평등해진다고 생각한다.
11. 흡연하는 친구는 흡연하는 친구끼리 친하다.
12. 흡연은 여권신장과 관계가 있다.
13. 흡연하는 친구는 안 좋게 보인다.
14. 흡연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다.
15. 흡연하는 친구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
16. 친한 친구가 흡연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17. 친구가 권하면 나도 담배를 피울 것 같다.
18.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연스런 행위다.
19. 담배는 커피와 같은 기호식품이다.
20.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
21. 당당하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
22. 흡연은 남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준다.
23. 흡연 사실을 친구에게 당당하게 말 할 수 있다.
24. 담배를 피우는 것이 멋있어 보인다.
25. 화장실 등 밀폐된 장소에서의 흡연은 안 좋아 보인다.
26. 담배는 의지만 있으면 끊을 수 있다.
27. 이성 앞에서 흡연은 피하는 것이 좋다.
28. 흡연은 폐암의 직격탄이다.
29. 흡연은 2세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
30. 담배를 끊고 싶지만 금단증상이 두렵다.
31. 흡연은 중독이라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32. 결혼 전에 담배를 끊어야 한다.
33. 담배냄새를 없애려고 향수를 쓴다.
34. 외로울 때 담배를 피면 위로가 된다.

35. 담배 사는 돈은 아깝지 않다.
36. 담배를 피우면 주의집중이 잘 된다.
37. 밥은 굶어도 담배는 끊을 수 없다.
38. 흡연을 하면 입에서 냄새가 난다.
39. 흡연하면서부터 남 앞에 나서기가 꺼려진다.
40. 흡연을 하면 가래가 생기는 것 같다.

2) P 표본의 선정과 분류과정

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을 5×7cm 카드에 인쇄한 후 1999년 8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30명의 여대생에게 가장 반대하는 경우를 1점, 중립은 5점, 가장 찬성하는 경우를 9점으로 Q 진술문을 Q분포도 상에 강제분포 방식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때 양극단의 진술문에 대한 선택의 이유를 추가 면접하여 기록하였다. 표집은 연구자의 편의상 일개 지역의 대학생으로 국한되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P표본이 분류한 내용을 점수화 한 후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였고, Q요인 분석은 주요인으로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여대생의 흡연행위에 대한 유형

조사 대상자들이 분류한 진술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3가지 유형은 전체 변량의 33.79%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을 보면 제1유형은 18.48%, 제2유형은 8.24%, 제3유형은 7.07%이었다(표 1).

〈표 1〉 유형별 Eigen value와 변량

	유형1	유형2	유형3
Eigen value	5.54	2.47	2.12
variance	.1848	.0824	.0707
cumulative	.1848	.2672	.3379

조사대상자의 구성을 보면 제1유형이 12명, 제2유형이 7명, 제3유형이 11명으로 각 유형내에서 인자 가중치

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에서 전형적인 대상자임을 나타낸다(표 2).

1) 제1유형: 자기의지형

제1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는 총12명으로 이 중 8명은 친구의 영향으로 흡연을 시작했으며 스스로 흡연을 시작한 대상자가 3명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시작한 연령은 15-20세였고, 주로 흡연하는 장소는 커피숍, 호프집, 화장실, 집(자취방, 하숙방)이었으며 장소에 상관없이 아무 곳에서나 피운다는 대상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하루 흡연량은 적게는 3개피에서 20개피까지 다양했고, 흡연형태는 깊게 흡입하는 편이 6명으로 50%였고 보통 정도 2명, 얇게 흡입하는 편이 4명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사는 대상자가 8명이었고 자취

와 하숙은 4명이었다. 금연을 하려고 7명은 시도한 적이 있으며 5명은 시도한 적이 없었다(표 2).

제1유형의 대상자들이 가장 긍정적 동의를 한 진술문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Z=2.33)이며,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Z=1.56), 「흡연은 남에게 피해를 준다」(Z=1.41), 「여성 흡연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Z=1.36),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감소된다」(Z=1.18), 「담배 사는 돈은 아깝지 않다」(Z=1.15), 「담배는 커피와 같은 기호식품이다」(Z=1.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낮게 동의한 진술문으로는 「흡연하는 친구는 안 좋게 보인다」(Z=-1.89)였고, 「친한 친구가

<표 2> 유형별 대상자의 특성과 인자 가중치

유형	변수 번호	인자 가중치	흡연시작 연령	영향 준 사람	흡연 장소	흡연량 (개피)	흡연형태	금연시도	거주형태
제1유형	1	2.2823	17	스스로	장소무관	12	깊게	유	자취
	3	1.6284	20	친구	커피숍	8	깊게	무	가족함께
	4	.8808	20	친구	커피숍	7	깊게	무	가족함께
	6	.7862	16	외삼촌	자취집	20	깊게	유	자취
	7	.5396	15	친구	하숙방, 커피숍	8	깊게	유	하숙
	8	.8083	19	친구	장소무관	3	얇게	무	가족함께
	9	1.2441	20	친구	호프집, 놀이터	5	얇게	유	자취
	11	1.3175	20	친구	화장실	6	얇게	유	가족함께
	14	1.3251	16	스스로	커피숍	10	보통	무	가족함께
	19	.5067	19	친구	호프집	4	보통	유	가족함께
	23	.5271	18	친구	커피숍, 화장실	6	얇게	무	가족함께
	30	.6905	16	스스로	화장실	6	깊게	유	가족함께
제2유형	2	1.6945	20	친구	커피숍	10	얇게	유	가족함께
	5	.4370	16	친구	장소무관	10	깊게	유	가족함께
	10	.8839	19	친구	커피숍	5	보통	유	하숙
	12	.3086	17	친구	커피숍, 자취방	10	얇게	유	자취
	13	.5307	18	친구	커피숍	5	얇게	무	가족함께
	18	.2062	19	친구	커피숍	4	보통	유	자취
	24	1.2587	16	친구	화장실	7	안 삼킴	유	가족함께
제3유형	15	.2963	19	친구	커피숍	10	보통	유	하숙
	16	.2190	16	친구	화장실	6	깊게	유	가족함께
	17	.7228	19	친구	커피숍	4	얇게	유	가족함께
	20	.3689	17	친구	커피숍	20	보통	유	가족함께
	21	.1268	18	친구	장소무관	10	깊게	유	자취
	22	.2928	19	친구	화장실	5	깊게	무	자취
	25	.6305	18	친구	커피숍	5	얇게	무	가족함께
	26	.7162	19	친구	호프집	10	얇게	유	자취
	27	.7769	22	친구	호프집	7	보통	유	가족함께
	28	.5617	16	친구	공원	12	깊게	유	가족함께
	29	.5806	21	친구	호프집	7	얇게	유	가족함께

흡연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Z=-1.71), 「흡연을 함으로서 남녀가 평등해진다고 생각한다」(Z=-1.66), 「담배를 피우면 주의집중이 잘된다」(Z=-1.62), 「흡연으로 건강에 이상이 오지 않는다」(Z=-1.46), 「흡연은 여권신장과 관계가 있다」(Z=-1.42), 「흡연은 중독이라 절대 끊을 수 없다」(Z=-1.19), 「당당하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Z=-1.00) 순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자기의지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진술문	표준 점수 (z- score)
5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2.33
20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	1.56
22	흡연은 남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준다.	1.41
6	여성흡연을. 색안경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1.36
2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1.18
35	담배 사는 돈은 아깝지 않다.	1.15
19	담배는 커피와 같은 기호식품이다.	1.13
21	당당하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	-1.00
31	흡연은 중독이라 절대 끊을 수 없다고 본다.	-1.19
12	흡연은 여권신장과 관계가 있다.	-1.42
7	흡연으로 건강에 이상이 오지 않는다.	-1.46
36	담배를 피우면 주의집중이 잘된다.	-1.62
10	흡연을 함으로서 남녀가 평등해진다고 생각한다.	-1.66
16	친한 친구가 흡연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1.71
13	흡연하는 친구는 안 좋게 보인다.	-1.89

이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 「담배를 사는 돈은 아깝지 않다」, 「흡연은 남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준다」, 「여성 흡연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등이었다(표 4).

제1유형중 인자가중치(=2.2823)가 가장 높은 1번 대상자의 경우 흡연을 혼자 스스로 시작했으며, 담배를 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이며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을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흡연하는 친구를 안 좋게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였다. 제1유형의 특성은 흡연이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습관으로서, 남녀평등이나 여권신장 등과 관계없이 철저히 개인적인 자유 권한으로 여성 흡연을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아직도 여성흡연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은 나쁘다고 하였다. 흡연이 남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면서도 개인의 기호식품처럼 생각하는 자기 주장이 강한 것처럼 보여 자기의지형으로 명명하였다.

2) 제2유형: 갈등해결형

제 2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는 총 7명으로 모두가 친구의 영향으로 흡연을 시작하였다. 흡연을 시작한 연령은 16-20세였고, 주로 흡연하는 장소는 커피숍, 화장실, 자취방이었으며, 장소에 상관없다고 대답한 대상자도 1명 있었다. 하루 흡연량은 10개피 이하가 4명, 10개피 이상이 3명이었고, 흡연 형태는 알게 흡입하는 형태가 3명, 연기를 삼키지 않는 대상자도 있었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4명, 자취와 하숙

〈표 4〉 자기의지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

항목 번호	높게 동의한 진술문	제1유형의 표준점수	다른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차이
5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205	2.532	2.327
20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	-.616	2.180	1.564
35	담배를 사는 돈은 아깝지 않다	-.342	1.495	1.153
19	담배는 커피와 같은 기호식품이다	-.235	1.367	1.132
22	흡연은 남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준다	.255	1.151	1.406
6	여성 흡연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215	1.143	1.357

이 3명이었고, 금연을 시도한 대상자가 6명, 시도한 적이 없는 대상자가 1명이었다(표 5).

〈표 5〉 갈등해결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z-score)
38	흡연을 하면 입에서 냄새가 난다	1.78
29	흡연은 2세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	1.74
2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1.65
14	흡연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다	1.57
37	밥은 굶어도 담배는 끊을 수 없다	-1.02
24	담배를 피우는 것이 멋있어 보인다	-1.31
35	담배 사는 돈은 아깝지 않다	-1.51
39	흡연하면서부터 남 앞에 나서기가 꺼려진다	-1.67
11	흡연하는 친구는 흡연하는 친구끼리 친하다	-1.70
21	당당하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1.75
1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나는 냄새가 싫다	-2.13

제2유형의 대상자가 가장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흡연을 하면 입에서 냄새가 난다」(Z=1.78)이었고, 「흡연은 2세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Z=1.74),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감소된다」(Z=1.65), 「흡연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다」(Z=1.5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나는 냄새가 싫다」(Z=-2.13)이었고, 「당당하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Z=-1.75), 「흡연하는 친구는 흡연하는 친구끼리 친하다」(Z=-1.70), 「흡연하면서부터 남 앞에 나서기가 꺼려진다」(Z=-1.67), 「담배 사는 돈은 아깝지 않다」(Z=-1.51), 「담배를 피우는 것이 멋있어 보인다」(Z=-1.31), 「밥은 굶어도 담배는 끊을 수 없다」(Z=-1.02) 등으로 나타났다(표 6).

이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으로 진술한 문항은 「흡연을 하면 입에서 냄새가 난다」, 「흡연은 2

세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흡연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다」 등이었다(표 6).

이 유형의 특성을 가장 높게 나타내는 2번(인자가중치=1.6945)을 보면 스트레스나 속상한 일이 생기면 흡연을 통해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하였고, 자신의 의지로 금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흡연이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도만 사용하고 있어 이 유형을 갈등해결형이라고 명명하였다.

3) 제3유형: 관계유지형

제3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총11명이며, 모두가 친구의 영향으로 흡연을 시작했으며, 흡연을 시작한 연령은 16-22세로 나타났다. 흡연장소로는 주로 커피숍, 호프집, 화장실을 사용하고, 아무 장소에서나 흡연을 하는 대상자도 1명이 있었다. 하루 흡연량은 5개피 정도가 6명, 10개피는 5명이었고, 20개피를 피우는 대상자도 1명으로 나타났다. 깊게 흡입하는 편이 4명, 얇게 흡입하는 편이 4명, 보통정도가 3명이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 7명, 하숙과 차취가 4명으로 나타났다. 금연을 시도해 본 대상자는 9명, 금연을 시도하지 않은 대상자가 2명이었다(표 2).

이 유형의 대상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흡연하는 친구는 흡연하는 친구끼리 친하다」(Z=2.34)였으며, 「결혼 전에 담배를 끊어야 한다」(Z=1.37), 「흡연을 함으로서 남녀가 평등해진다고 본다」(Z=1.35), 「흡연하면 가래가 생기는 것 같다」(Z=1.28), 「미화된 흡연장면을 보면 흡연을 하고 싶어진다」(Z=1.17), 「흡연하는 친구는 안 좋아 보인다」(Z=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친한 친구가 흡연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Z=-2.30)로 나타났다

〈표 6〉 갈등해결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

항목 번호	높게 동의한 진술문	제2유형의 표준점수	다른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차이
38	흡연을 하면 입에서 냄새가 난다	.481	1.296	1.777
29	흡연은 2세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	.381	1.363	1.744
2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584	1.063	1.647
14	흡연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다	-.224	1.798	1.574

고, 「당당하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Z=-1.48), 「할 일이 없을 때 담배에 손이 간다」(Z=-1.42), 「담배를 피우면 체중이 감소된다」(Z=-1.26),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Z=-1.23),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연스런 행위이다」(Z=-1.01),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Z=-1.00)등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관계유지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z-score)
11	흡연하는 친구는 흡연하는 친구끼리 친하다.	2.34
32	결혼 전에 담배를 끊어야 한다	1.37
10	흡연을 함으로서 남녀가 평등해진다고 본다	1.35
40	흡연하면 가래가 생기는 것 같다	1.28
9	미화된 흡연장면을 보면 흡연을 하고 싶어진다	1.17
13	흡연하는 친구는 안 좋게 보인다	1.04
20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	-1.00
18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연스런 행위이다	-1.01
5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1.23
3	담배를 피우면 체중이 감소된다	-1.26
4	할 일이 없을 때 담배에 손이 간다	-1.42
21	당당하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	-1.48
1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나는 냄새가 싫다	-2.15
16	친한 친구가 흡연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2.30

이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으로 동의를 나타낸 진술문은 「흡연하는 친구는 흡연하는 친구끼리 친하다」, 「결혼 전에 담배를 끊어야 한다」, 「흡연을 함으로서 남녀가 평등해진다고 생각한다」, 「흡연을 하면 가래가 생기는 것 같다」, 「미화된 흡연장면을 보면 흡연을 하고싶다」, 「흡연하는 친구는 안 좋게

보인다」 등이었다(표 8).

제3유형에서 가장 인자가중치(=.2963)가 가장 높은 15번 대상자는 흡연이 건강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으로 여성흡연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흡연을 화장실, 카페 등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 흡연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원하고 있었다. 친구와의 친교 수단으로 흡연을 하여 관계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4) 여대생의 흡연행위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

여대생의 흡연행위와 관련된 진술문중 세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진술문은 총 8개로 나타났다(표 9). 흡연을 하면 가래가 생기고 폐암에 걸릴 수 있다고 지각하면서도 외로울 때는 흡연을 함으로서 위로가 된다고 하였다. 현재는 흡연을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금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흡연을 하면서도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꺼리고 특히 이성 앞에서 흡연을 삼가고 냄새를 없애려고 향수를 사용하며, 특히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을 함으로서 자신의 흡연행위에 대한 당당함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9〉 세유형간의 일치점이 높은 진술문

항목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z-score)
40	흡연을 하면 가래가 생기는 것 같다	.97
34	외로울 때 담배를 피면 위로가 된다	.43
26	담배는 의지만 있으면 끊을 수 있다	.23
27	이성 앞에서 흡연은 피하는 것이 좋다	.12
28	흡연은 폐암의 직격탄이다	.02
33	담배냄새를 없애려고 향수를 쓴다	-.11
37	밥은 굶어도 담배는 끊을 수 없다	-.56
21	당당하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	-1.41

〈표 8〉 관계유지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

항목 번호	높게 동의한 진술문	제3유형의 표준점수	다른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차이
11	흡연하는 친구는 흡연하는 친구끼리 친하다	-.802	3.145	2.343
32	결혼 전에 담배를 끊어야 한다	.270	1.1.05	1.375
10	흡연을 함으로서 남녀가 평등해진다고 생각한다	-1.240	2.586	1.346
40	흡연을 하면 가래가 생기는 것 같다	.813	.465	1.278
9	미화된 흡연장면을 보면 흡연을 하고싶다	.061	1.108	1.169
13	흡연하는 친구는 안 좋게 보인다	-1.423	2.461	1.038

V. 논 의

21세기를 맞아 남성흡연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임에 반하여 여성의 흡연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여성흡연을 여성건강 문제로서 표면화된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식하여 올바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흡연을 하고 있는 여대생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세가지 주관적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1유형은 자기의지형으로 흡연이 남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흡연을 개인적인 습관행위로 여기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신성례, 1997; 김문실, 김애경, 1997a)에서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이 유형은 남녀평등이나 여권신장과 관계없이 행위를 함으로서 Cloyton(1991), 김경선과 이지원(1999)의 사회적 불평등에 의해 흡연을 한다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유형의 교육에는 올바른 건강습관에 관한 지침과 특히 흡연, 알콜, 커피 등 습관성을 유도하는 기호식품 및 생활습관에 관한 재강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2유형은 갈등해결형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흡연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김문실, 김애경(1997a), 이계은(1992), 김경선과 이지원(1999)의 연구에서도 여성흡연이 스트레스 해결의 방법으로 쓰인다는 것과 일치한 결과로, 흡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려움에 부딪치면 다른 해결방법을 찾기보다는 쉽게 흡연행위를 하고 있었다. 김종성 등(1989), 전상임 등(1992)의 연구에서도 이 시기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적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한다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창희 등(1992)의 연구에서도 흡연을 시작하는 시기는 주로 20대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Maunz & Woods(1988), 서연옥(1995)은 아직은 여성이 사회구조상 어려움을 표현하기 힘들어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함으로서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갖게 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와 그에 적절한 건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금연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제3유형은 관계유지형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고 사회적 편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 흡연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최선하(1999)연구에서 흡연에 영향을 준 사람이 친구이며, 그들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흡연을 하는 것과 일치된 결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친구와 사회적으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문화의 장과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세가지 유형 모두에서 공통적인 견해는 건강에 이상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지가 있으면 금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외로울 때는 위로를 받기 위해 흡연을 하고 있었다. 한편 흡연을 하면서도 흡연행위에 대한 당당함이 적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꺼려 여성 스스로 잠재적으로는 사회적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의 장소로 밀폐된 공간을 사용하고 깊게 흡입함으로서 더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영숙(1999)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었다. 흡연의 시작시기 또한 질병 발생률과 관계가 있으며(Anderson, 1985), 본 연구에서도 평균 17세 정도의 청소년기에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각 유형에 따라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주관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 특성에 근거한 효율적인 금연교육과 건강증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차세대 건강을 담당할 성인초기의 여성 중 흡연하고 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금연교육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대상자의 흡연행위에 대한 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Q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1유형은 자기의지형으로 흡연은 개인적인 권리로 남녀평등이나 여권신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습관행위로 여기고, 여성흡연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은 나쁘다고 보며 흡연행위에 대한 자신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제2유형인 갈등해결형은 흡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고 흡연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느끼면 다른 해결방법을 찾기보다는 흡연행위로 해결하는 형이다.

제3유형은 친구나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동조행위로 흡연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유지형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견해는 흡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고 사회적으로 여성흡연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흡연을 하면서도 자유로움을 느끼지는 못하여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꺼리고, 흡연행위도 커피숍, 화장실 등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고 있어 더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통해 볼 때 금연교육에서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과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고민을 의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대상자가 10대 중·후반에 흡연을 시작하고 친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져 이 시기에 금연교육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경선, 이지원 (1999). 여대생 흡연과 환경적 요인 및 자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6(2), 185-197.
- 김남성 (1985). 인지적 행동수정. *교육과학사*, 63-93.
- 김문실, 김애경 (1997a). 대학생의 흡연행위 유형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7(4), 843-856.
- 김문실, 김애경 (1997b). 일부 여대생의 흡연정도경험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7(2), 315-328.
- 김일순 (1987). 흡연과 건강. *대한의학협회지*, 30(8), 825-830.
- 김종성, 이민동, 각기우, 이혜리, 윤방부 (1989). 가족요인의 차이에 따른 대학생의 흡연양상. *가정의학회지*, 10(5), 11-21.
- 김혜원 (1999). 여대생의 금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9(1), 48-60.
- 김홍규 (2000). 한국적 간호의 연구방법론-Q방법론-. *원광보건대학 간호과학연구소*.
- 남정자 (1997). Life specific well women health care: Comprehensive approach. *대한간호학회 · 여성건강간호학회대회*, 3-36.
- 박오장, 홍미순, 소향숙, 장금성 (1988). 당뇨교육이 당뇨환자의 역할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18(3), 281-288.
- 송미숙 (1987). 여대생에 있어서 흡연양상과 흡연이 영양섭취 및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서울 시내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연옥 (1995).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생활방식에 관한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학위논문*.
- 신성례 (1997). 흡연 청소년을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계은 (1992). 여고생의 흡연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라 (1997). 대학생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7(1), 156-168.
- 이수경 (1987). 일부 여대생의 흡연실태와 그의 따른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희, 서요숙, 조용준 (1992). 가정의학과 외래환자의 흡연양상. *가정의학회지*, 13(11).
- 전매희, 진행미 (1995). 여성의 건강과 운동. *보경문화사*.
- 전상임, 박용우, 김철환, 정유석 (1992). 의사의 금연교육이 환자의 흡연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3(6).
- 정영숙 (1999). 일 지역 성인의 흡연실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3(1), 97-113.
- 중앙일보 (2000). 사회면, 9월 26일.
- 최선하 (1999). 청소년의 흡연행위에 관한 태도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3(2), 174-182.
- 최연순, 장순복, 조희숙 등 (1994). 모성간호학. 서울: 수문사.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1995). 1995년 중·고교생 흡연실태조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자료집*.
- Anderson, M. R. (1985). Risk of lung cancer, chronic bronchitis, ischemic heart disease and stroke on relation to type of cigarette smoke. *J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 Health, 39, 286-293.
- Brink, S. G. et al. (1988). Developing comprehensive smoking programs in school. *J of School Health*, 58(5), 177-180.
- Clayton, S. (1991). Gender differences in psychosocial determinants of adolescent smoking. *J. of social health*, 61(3), 115-120.
- Fieldong, J. E. (1985) Essential elements of school based smoking prevention programs. *J. of School Health*, 59(5), 181-188.
- Gray N. L. (1990). A comprehensive analysis of factor influencing smok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 *J. of Drug Education*, 20(3), 247-255.
- Hirayama, T et al. (1981). Non-smoking wives of heavy smoking have a higher risk of cancer : A Study of Japan, 118(7), 521-525.
- Maunz, E. R., & Woods, N. F. (1988). Self care practices among young adult women: Influence of symptoms, employment, and sex role orientation.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9, 29-41.
- McAlister, A. C. (1975). Helping people quit smoking : Current progress. In A.M. Enelow & J.B. Henderson(Eds). *Applying behavioral science to cardiovascular risk*. N.Y.: American Heart Association.
- McDermott, R. J., P. D. Sarvela, P N. Hoalt, S. M. Bajracharya, P. J. Marty and E. M. Emery (1992). Multiple correlates of cigarette us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 of School Health*, April, 62(4), 146-150.
- Naslund g. k., Fredrikson M., Hellenius, M. L. (1996). Effect of diet and physical exercise intervention programmes on coronary heart disease risk in smoking and non-smoking men in Sweden.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50(2), 131-136.
- Penner, M. (1989). Economic incentive to reduce employee smoking : A health insurance surcharge for tobacco using state of kansas employees. 4(1), *Psychological Review*, 4, 191-215.
- Winkelstein, M. L. (1992). Adolescent smoking : influential factors, past preventive efforts, and future nursing implications, *J. Pediatr Nursing*, 7(2), 120-127.

ABSTRACT

A Study into Pattern of Smoking Behaviors of Female Student Smokers*

Kim, Kyoung Seon
(Dept. of Nursing, WonKwang, Health College)

This study, aimed to categorize attitude of smoking behaviors among female student smokers and to provide useful data for development of anti-smoking programs was conducted from Aug. 22 to Nov.1, using the Q-method.

After reviewing the literature the researcher proceeded to interview 10 female students , then developed a statement form consisting of 40 items, and then 30 female student smokers were sampled. The collected data were coded after having been scaled from 1 to 9 points, and analyzed using the PC QUANL program.

Three types were identified:

The first type focused on the right of the individual to smoke. the second type of students used smoking as a way to relieve their stress, and the third type of students wanted to use smoking as a tool to relate with their peer group.

They smoked in closed areas, i.e. rest rooms, coffee shops - places that are not well ventilated and deep inhalation occurs. most subjects of the study started smoking at early ages(the average age was 17). Smoking at this age is especially harmful.

It is suggested that the results of the study may be useful for designing anti-smoking health programs including health promotion.

* The research was funded by Wonkwang Health College.